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 대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FinanceYahoo: 달라스 연준 총재, “연준 점차적인 금리 인하 시행해야”
- CNNBusiness: 미 유권자들, “미국 경제 문제 있다”
- WSJ: 인플레이 둔화해도 의료보험료 급등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30년 주택 모기지, 1년여 만에 가장 크게 증가

[미국 생활]

- CNNBusiness: 플로리다 주유소 1천5백군데 기름 모자라...허리케인 밀톤 대비

[물류]

- WSJ: 미 항만 자동화 이슈가 ‘화약고’

[에너지]

- WSJ: 재생 에너지 2030년까지 급성장, 하지만 유엔 기후 목표엔 부족
- WSJ: 유가 상승세...중동 리스크와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EU 자동차와 브랜드 표적

[IT]

- WSJ: 위급시 위성으로 아이폰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미국, 반독점 소송에 구글 해체 검토
- Bloomberg: 월스트리트 급여, 팬데믹 고점 때보다 하락
- FinanceYahoo: 보잉사 노사 협상 난항을 보인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FinanceYahoo: Fed's Logan calls for 'gradual' rate cuts, says 'should not rush'

달라스 연준 총재, “연준 점차적인 금리 인하 시행해야”

- 달라스 연준 총재인 Lorie Logan은 지난 9월 0.5% 금리 인하는 지지하지 만 향후에는 더 작은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여전

히 인플레이 리스크가 있으며 향후 경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 그는 연준이 중립 금리로 금리를 낮추는데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금융 상황, 소비 추세, 임금, 물가 등을 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inanceYahoo 기사

CNNBusiness: Voters think America's economy stinks. There's nothing that will change that before the election 미 유권자들, “미국 경제 문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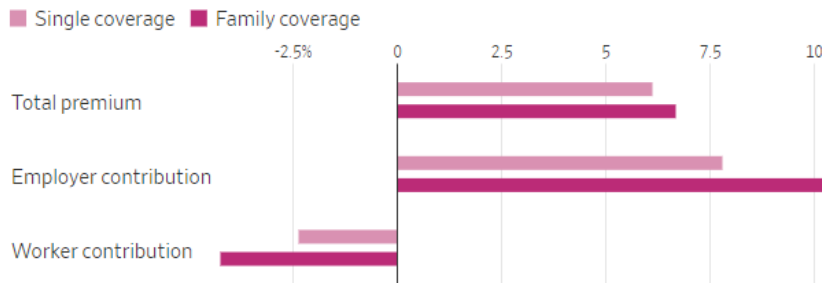
- 일자리는 좋은 상태고, 인플레이도 둔화되고 있고, 미국인들은 계속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 향후 한 달 동안 경제 지표가 좋으면 해리스에게 좋은 소식이다. 좋지 않은 지표일 경우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 최근 하버드 센터의 관련 9월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대부분은 경제가 잘못된 궤도에 있거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정부의 공식 CPI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식료품 영수증에 신경을 쓰며, 최근과 비교하여 현재 달러가 얼마나 들었는지로 경제를 본다고 말했다.
- 조사에서 유권자의 65%는 가구 수입이 생활 비용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답했다.

CNNBusines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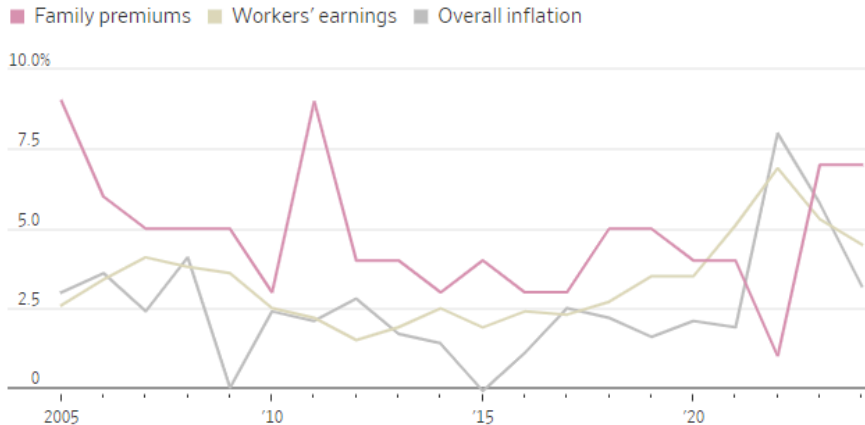
WSJ: Healthcare Premiums Are Soaring Even as Inflation Eases, in Charts 인플레이 둔화해도 의료보험료 급등한다

- 올해 직장 의료보험이 2년 연속 7%가 상승했는데 이는 과거 10여년 동안 전례 없는 상승세라고 관련 비영리 단체 KFF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연간 평균 가정의 의료보험이 3천불 더 상승해 올해 대략 2만5천5백불에 달한다.
-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올해 1천8백80불을 더 부담해 가족당 의료보험 평균 비용이 1만9천2백76불로 증가했다. 반면에 근로자들의 가정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작년보다 2백80불이 줄어든 6천2백96불이다.

Change in cost of premiums, 2023-24



Average annual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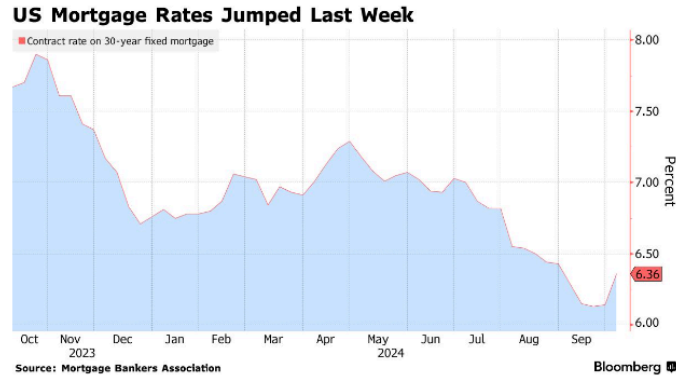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Climbs by Most in More Than a Year
30년 주택 모기지, 1년여 만에 가장 크게 증가

-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율이 작년 7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달에 주택 구입 활동을 증가시킨 모기지율 상승이 중단된 것이다.
-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10월 4일에 끝나는 주에 30년 모기지율은 22배 이시스 포인트 증가한 6.36%를 기록하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이 협회의 재금융 지표도 9.3% 떨어졌는데 지난 8월 중순 이래 가장 큰 폭은 하락세였다. 주택 구매 신청 지수도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NBusiness: Nearly 1,500 Florida gas stations have run out of fuel. Hurricane Milton could cause even more trouble **플로리다 주유소 1천5백군데 기름 모자라...허리케인 밀톤 대비**

- 허리케인 밀톤을 주민들이 대비하는 상황에서 플로리다 많은 지역의 주유소들이 기름이 부족한 상태다.
- 주민들이 대피하기 전 차량에 휘발유를 채우거나, 오랫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자가 발전기 가스탱크를 채우는 상황에서 가스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 플로리다주의 주유소의 19.7%가 기름이 없는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7,700개의 주유소 중에 1,477개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

CNNBusiness 기사

[물류]

WSJ: The Battle Over Robots at U.S. Ports Is On **미 항만 자동화 이슈가 '화약고'**

- 지난주에 동부와 걸프만 항만 노동자들이 6년간 임금 62% 인상에 합의하면서 3일간의 파업이 끝났다.
- 그러나 아직 항만 자동화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다.
- 만약 자동화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경우 항만 노동자들이 다시 피켓 시위를 할 수 있다. 현재 항만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노동자들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 기계 업무 처리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

- 항만 고용주들은 미국 항만의 자동화 수준이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고, 자동화 도입으로 새로운 역할의 일자리 창출, 더 많은 화물 처리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노조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근로자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WSJ 기사

[에너지]

WSJ: Renewables Growth Set to Surge by 2030 But Falls Short of U.N. Climate Goal, IEA Says

재생 에너지 2030년까지 급성장, 하지만 유엔 기후 목표엔 부족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재생 에너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의 거의 절반인 5,500기가와트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IEA의 전무이사 Fatih Birol은 “재생 에너지가 각국 정부의 목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데 재생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IEA는 “하지만 이 정도론 전 세계 생산량을 세 배 늘리려는 유엔 목표에 모자라다. 재생 에너지를 전력 시스템에 통합하고, 전력망의 현대화, 허가 절차 간소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의 비용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Oil Edges Up Amid Middle East Risks, China Stimulus

유가 상승세...중동 리스크와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

-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이번 주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 브리핑을 앞둔 가운데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브렌트유는 0.7% 상승한 배럴당 77.53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6% 상승한 배럴당 74.1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 AMZ 리서치 팀은 또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못해 여전히 수요 약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약세 우려가 3분기 유가를 압박하고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Targets EU Cars, Brandy in Retaliation Over EV Tariffs
중국,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EU 자동차와 브랜디 표적

-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보복으로 EU 브랜디에 최대 39%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화요일 대형 엔진을 갖춘 수입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최근 몇 년간 무역 갈등은 중국과 EU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동차, 음료수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추가는 유럽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BMW AG는 주가가 3% 이상 하락했고, 프랑스 양조업체 Remy Cointreau SA는 주가가 9.3% 하락했다.
- 유럽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중국의 전기차 덤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그 이후 관세가 발효된다. EU의 경제 담당 집행위원 Paolo Gentiloni는 “우리는 적절하고 비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보복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IT]

WSJ: When Cell Service Is Down, You Can Send iPhone Texts via Satellite
위급시 위성으로 아이폰 문자를 보낼 수 있다

- 허리케인이 이동통신 네트워크나 전기를 끊어 연락을 할 수 없을 때, 아이폰으로 긴급 서비스에 연락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애플은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핸드폰을 위성 전화로 전환한 덕분이다.
- 아이폰 14 이상의 라인업이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iOS 18을 사용 중이라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문자를 받는 상대도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하늘과 수평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야외에 있어야 한다. 나무는 신호를 차단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서비스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500자 제한의 문자만 보낼 수 있다. 응답 속도도 들쭉날쭉하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US Weighs Google Breakup in Historic Big Tech Antitrust Case

미국, 반독점 소송에 구글 해체 검토

- 미국 법무부는 연방 판사에게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구글 검색 및 관련 제품과 기능이 시장을 독점하도록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20년 전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해체하는 데 실패한 이후, 빅테크 기업의 불법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일부 강력한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이 검색 배포 계약에 대한 판결의 법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제안이다. 너무 급진적이고, 소비자, 기업, 미국 경쟁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all Street Salaries Decline Further From Pandemic Heights 월스트리트 급여, 팬데믹 고점 때보다 하락

- 2023년 뉴욕시 증권 산업의 급여가 두 해 연속 하락했다. 뉴욕주 감사관 Thomas DiNapoli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평균 급여는 보너스를 포함해 47만1천370달러였다. 작년보다 5.2% 감소했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8.7% 하락했다.
- DiNapoli는 “팬데믹 때 고점을 찍은 이후 2022년과 2023년 월스트리트 급여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해졌다. 올해는 수익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2023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증권 거래소 회원의 브로커 딜러 운영 세전 수익이 2024년 상반기 2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약 80% 증가했다. 이익 증가로 올해 보너스도 7.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증권 산업의 고용은 계속 증가해 작년 21만4천9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2019년보다 1만5천600개 증가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Boeing strike likely to be a 'near-term blip': Portfolio manager 보잉사 노사 협상 난항을 보인다

- 보잉사와 생산직 근로자들 간의 협상이 이번 주에 결렬되면서 보잉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

- 어제 화요일 보잉사 측은 “불행하게도 노조는 우리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협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조 측은 임금 인상이나 휴가, 보너스, 401(k)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401(k)는 고용주가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이다.

FinanceYahoo 기사

[보고서]

"美 2024 회계연도 재정 적자 1조8천억달러...이자 비용 34%↑" 의회예산국 추정...고금리로 증가 이자 비용 1천276조원, 국방예산보다 많아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천300억 달러(약 2천459조원)를 기록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프로그램 지출 및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조1천300억 달러(약 4천206조원), 2021년 2조7천700억 달러(약 3천722조원)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